

# 李대통령 “국민들 에너지 아껴쓰기 동참 부탁”

최악 상황 가정 철저 대비책 수립 지시  
석유최고가 2차 고시 앞 “담합 일벌백계”  
“추경 빠를수록 효과...지역화폐 직접지원”

이재명 대통령은 24일 중동전쟁 확대·장기화와 관련 “공공기관은 차량 5부제 등으로 출퇴근을 줄이고 우리 국민들께서도 대중교통 이용과 생활 절전 등 에너지 아껴쓰기 운동에 동참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중동전쟁의 확대·장기화로 원유와 천연가스 등의 수급 불안이 커지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국민 여러분의 협조도 절실하다”며 “외환 위기와 코로나 국난을 극복했던 것처럼 이번 위기 역시도 우리 국민 모두가 마음과 뜻을 모으면 얼마든지 이겨낼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각 부처는 수급 우려 품목을 포괄적이고 꼼꼼하게 점검하고 대체 공급선 등을 세밀히 파악해달라”며 “최악의 상황까지 가정된 대비책을 철저히 수립해달라”고 지시했다.

또한 이 대통령은 “27일에는 석유 최고가격 2차 고시가 예정돼 있다”며 “국제 유가가 큰 폭으로 올라 (최고) 가격 인상이 불가피한 상황이지만 국민 삶에 미칠 충격을 조금이라도 덜기 위한 구제방안을 신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24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재정경제부의 중동 상황 관련 대응 현황 보고를 받고 있다.

/연합뉴스

이 대통령은 “검찰이 어제 정유사의 기름값 담합 의혹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는데 국민 고통을 악용한 부당한 돈벌이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발본색원하고 일벌백계해야 한다”고 단

호한 입장을 밝혔다. 이 대통령은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에 대해 “중동 전쟁의 충격이 갈수록 커지는 상황에서 ‘전시 추경’ 편성과 처리는 빠를수록 효과가 배가될

것”이라며 신속한 처리를 강조했다. 특히 이 대통령은 “현금으로 주는 것보다는 지역화폐 형태로 지급해야 골목상권에 돈이 빨리 돌고 경기 순환에 도움이 된다”며 지역화폐

를 이용한 민생지원금 지급 방안에 힘을 실었다. 아울러 “가난한 사람들에게 돈을 주면 많이 쓰지만 부자들한테는 100만원을 쥐 봐야 안 쓴다”며 “어려운 사람들에 돈을 더 많이 지급하는 것은 동정심에서가 아니다. 경제 정책상 필요한 일”이라고 차등 지급의 필요성을 부각했다.

이 대통령은 “일각에서 ‘세금으로 퍼주기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며 “이는 정치적 선동 때문에 생긴 오해다. 원래 정부는 국민에게 돈을 쓰는 것이다. 세금도 잘 쓰기 위해 걷는 것이다. 아껴서 저축하는 게 정부 기능이 아니며 (이런 상황에서) 안 쓰는 것은 무능하고 무책임한 일”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영양실조에 걸리면 돈을 빌려서라도 영양을 보급해야지 어려울 때 허리띠를 졸라매면 큰일 난다”며 “퍼주기가 아니다. 국민의 세금을 국민에게 돌려드리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만약에 초과 세수가 없다면 빚을 내서라도 추경을 해야 하는 상황이지만 다행히 이번엔 초과 세수가 있어 빚 내지 않고 하는 추경”이라고 덧붙였다.

지역화폐 등 직접 지원이 아닌 유류세 인하 등의 카드가 낫지 않는다는 의견에 대해 이 대통령은 “이는 정책적 판단의 문제인데 유류세를 깎아주면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더 심해진다”며 “그래서 일부는 세금을 깎아주되 일부는 재정지출을 통한 직접 지원을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진수 기자

## 한빛원전 비대위-국회 환노위 간담회

이개호 “주민 의견 반영 노력할 것”

더불어민주당 이개호 국회의원(담양·함평·영광·장성)의 주선으로 지난 23일 국회에서 영광 한빛원전 흥농읍 비상대책위원회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흥농읍 비상대책위원회의 간담회가 열렸다.

이날 간담회에서 흥농읍 비상대책위는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문제가 단순한 기술적 사안이 아닌 원전 인근 주민들의 생명, 안전, 재산권과 직결된 중대한 인권 문제”라며 “지역 주민이 정책 결정의 능동적 참여자가 될 수 있도록 국회 차원의 적극적인 역할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비대위는 또 “고준위특별법 시행령에 따른 민간위원회 구성 시, 한빛원전 반경 5km 이내 지역 주민이 과반수 이상 참여하도록 보장해 달라”고 주문했다.

현재 시행령이 위원회 구성 방식을 하위 규정으로 위임하고 있어 지역 주민의 실질적 참여와 의견권 보장이 불투명하다는 지역 사회의 깊은

우려를 전달한 것이다.

특히 영구 처분장 미확보 상황에서 임시 저장 시설이 사실상 영구 처분장으로 전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법·행정적 확약을 요구했다. 임시 저장시설의 운영 기한을 법적으로 명문화하고 기한 초과 시 강제 이행 수단을 규정하는 등 확실한 제도 장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또한 실질적인 지역 발전을 이끌어내기 위해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의 전면 개정이 시급하다며 원전 주변 5개 지역 협의체 결성에 따른 상임위 차원의 긴밀한 협조를 당부했다.

이개호 의원은 “수십 년간 원전과 함께 생활해 온 지역 주민들의 정당한 요구와 깊은 우려에 전적으로 공감한다”며 “후속 법령과 행정 계획 수립 과정에서 주민들의 의견이 형식적 절차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국회 차원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김진수 기자

## 김성 장흥군수, 재선 도전 공식 선언

‘K-노벨 특구’ 지정 등 5대 공약 제시

김성 장흥군수가 6·3 지방선거에서 재선 도전을 공식 선언했다.

김 군수는 지난 23일 선거사무소 개소식 기자회견을 열어 “장흥을 더욱 빛나게, 장흥을 더욱 활기차게 만들겠다”며 연임 도전을 공식화했다. 그는 “민선 8기 동안 부단히 노력했으나 여러 제

약으로 아쉽게 미완에 그친 ‘어머니 품 장흥’과 ‘노벨문화도시 장흥’의 비전을 중단 없이 완성하겠다”고 출마 배경을 밝혔다. 이어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으로 바꾸는 탁월한 능력과 중앙정부의 문을 여는 풍부한 인맥,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불굴의 도전 정신으로 장흥부흥 시대를 열겠다”고 강조했다.

김 군수는 장흥을 ‘전남 광주특별시의 핵심 거점 도시’로 도약시키기 위한 ▲인구 4만명 시대



진입 ▲농어촌 기본소득 전면 시행(기금 300억원 조성) ▲청년 일자리 500개 이상 유치 ▲관광객 500만명 유치 ▲예산 1조원 시대 개막 등 5대 핵심 공약을 제시했다.

김 군수는 “장흥을 부흥시키고 군민의 행복을 위한 일이라면 어떤 고난과 역경도 과감히 헤쳐 나가겠다”며 “모든 군민이 더불어 행복한 으뜸 복지 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지지 호소했다.

/정홍=노형록 기자

## 소영호 장성군수 예비후보, 자격 논란 정면 반박

“중앙당·전남도당 적격 판정 완료”

더불어민주당 소영호 장성군수 예비후보는 24일 “이미 당의 공식 절차에 따라 검증이 완료된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반복적인 정치공세가 이어지고 있다”며 최근 제기된 피선거권 자격 논란을 정면 반박했다.

소 예비후보는 이날 전남도의회 브리핑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민주당 중앙당과 전남도당으로부터 피선거권 예외의결 후보자로 공식 확정된 상태로 이후 자격심사와 공천심사 등 엄격한 검증 절차를 거쳐 경선 후보 적격 판정을 받고 경선에 참여하고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

특히 그는 “경선을 앞둔 시점에서 특정 후보



를 겨냥해 제기되는 일방적인 의혹 제기와 정치 공세는 당원과 유권자의 합리적 판단을 흐릴 수 있고 경선 자체를 혼탁하게 만들 우려가 크다”며 “경선은 어디까지나 당헌·당규에 따라 공정하게 치러져야 하며 후보의 자격 여부는 이미 당의 공식 절차를 통해 판단된 만큼 더 이상 소모적인 논쟁으로 이어져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양시원 기자

현대인들의 면역력 증진 뿐 아니라 장 건강, 피부 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는

# 그린 프리미엄 베라골드 400

알로에겔 Green Premium Vera Gold

- 알로에 본고장인 미국산 유기농 알로에베라겔 즙액 400%
- 면역다당체 하루 섭취량 300mg



그린알로에 건강기능식품은 단 1%도 중국산 원료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제조사: 코스맥스엔비티(주) ■유통전문판매원: (주)그린알로에 ■소비자상담실: 080-234-6588

그린 알로에